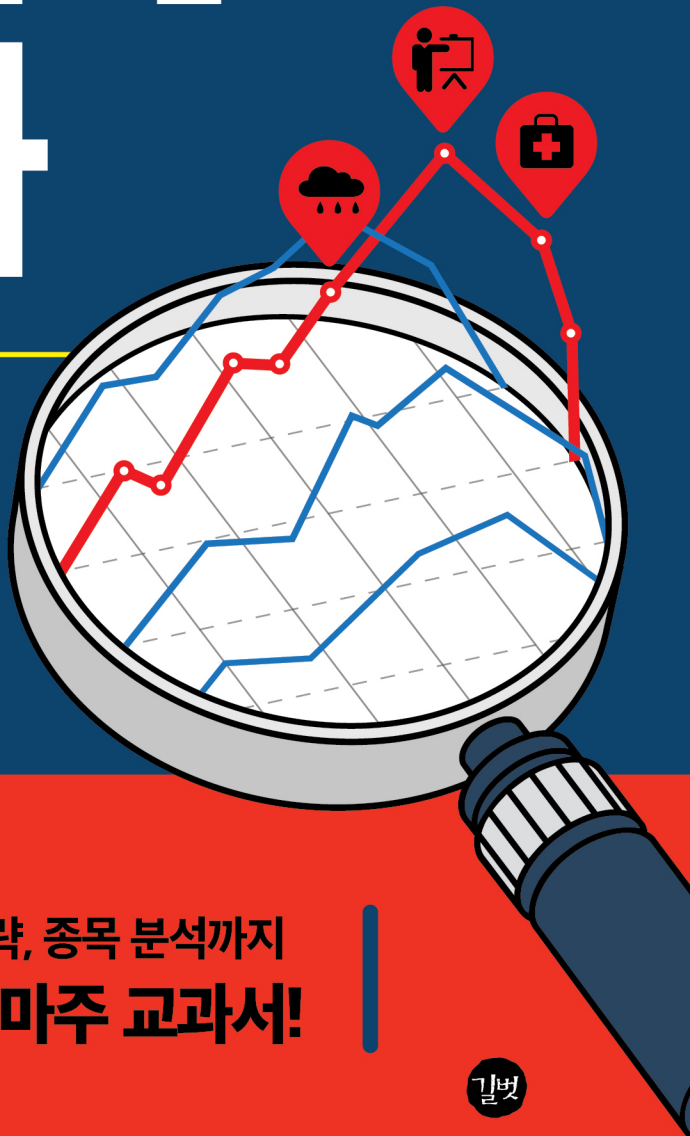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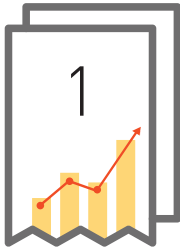
무관심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아라!



기본 지식부터 투자 전략, 종목 분석까지
왕초보를 위한 테마주 교과서!

| 테마주 투자 포인트 캘린더 |

1월 · JAN	2월 · FEB	3월 · MAR
고배당주 배당락 저점 매수 포인트		미세먼지주 고점 매도 포인트(3~4월) · 분기 배당 기준일 · 3월 말 결산 법인 배당 기준일
4월 · APR	5월 · MAY	6월 · JUN
미세먼지주 고점 매도 포인트(3~4월)		· 중간 배당 기준일 · 6월 말 결산 법인 배당 기준일
	조류독감주 저점 매수 포인트(4~6월)	
		여름 폭염주 고점 매도 포인트(5~8월)
		장마주 고점 매도 포인트(6~7월)
7월 · JUL	8월 · AUG	9월 · SEP
	미세먼지주 저점 매수 포인트(7~8월)	
	여름 폭염주 고점 매도 포인트(5~8월)	
	장마주 고점 매도 포인트(6~7월)	· 분기 배당 기준일 · 9월 말 결산 법인 배당 기준일
10월 · OCT	11월 · NOV	12월 · DEC
	조류독감주 고점 매도 포인트(10~12월)	· 연말 배당 기준일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 · 중소형주 저점 매수 포인트 (12월 말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정 이슈)



테마주의 특징과 투자 전략

테마주의 종류

이 책에서는 테마주를 6가지로 나누었다. 테마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지속성, 성장성, 확장성, 사람 리스크로 구분한다. 특징별 투자 전략은 아래와 같다.

- ① 계절주: 계절에 따른 주가 급등
- ② 정책주: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른 주가 급등
- ③ 남북경협과 방산주: 남북 관계에 급등락 반복
- ④ 엔터테인먼트주: 흥행에 민감
- ⑤ 정치주: 선거에 따른 주가 급등
- ⑥ 품절주: 주식 유통량이 적어 매물 잠김

▼ 테마주 특징별 투자 전략

구 분	특 징	관련 테마
지속성	뉴스거리가 계속 있다.	정치주
성장성	정책에 따라 장기간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정책주
확장성	종목 확장성이 낮다면 기존 주식이 계속 소환되니 변화가 적다.	계절주, 남북경협주·방산주, 품절주
사람 리스크	테마 당사자인 사람이 기회이자 위기이므로 사람 리스크 확인은 필수다.	정치주, 엔터테인먼트주

정치주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지속성은 테마 이슈가 계속되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단기 이슈는 뉴스가 보도되면 더 이상 화젯거리가 없지만, 만약 더 나올 뉴스가 있다면 지속성은 오래 간다. 선거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각종 이벤트는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입당, 당 대표 선출, 대선 출마 선언, 후보 확정 등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고점 매도 이후에도 놀림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수급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엿보자.

정책주는 가치투자 대상이다

성장성은 실적 개선으로 회사가 크는 것이다. 정책과 관련된 테마인 정책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가치투자 입장에서 좋은 투자처가 된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로봇, 수소차, 5G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장기간 투자하면 성장 과실을 얻을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정책주는 자녀들에게 증여하기에도 좋은 종목이다.

종목 교체가 적은

계절주, 남북경협주(방산주), 품질주를 노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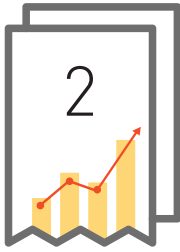
확장성은 종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확장성이 높은 테마주는 정치주, 정책주, 엔터테인먼트주 등이다. 새로운 정치인과 인맥,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케이팝 스타 등이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에서도 종목이 늘어나면 기존 종목은 매력이 사라질 수 있다. 다시 진입할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테마에서 탈락이라고 보아야 한다.

확장성이 낮다는 것은 잦은 종목 교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종목 교체가 적으니 한번 알아 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초보 투자자나 은퇴자에게 최적의 투자 대상이다. 확장성이 낮은 테마로는 계절주, 남북경협주·방산주, 품질주가 있다. 계절은 1년마다, 남북 대치는 수시로 바뀌니 이미 나올 종목은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이 많지 않다. 품절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높아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품절주가 생겨나기는 쉽지 않다.

정치주와 엔터테인먼트주, 사람을 믿지 마라

정치와 엔터테인먼트의 공통점은 사람에 의한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다. 사람을 잘 만나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급등하지만 반대로 순식간에 하락하기도 한다. 대선 후보 1위였던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에 모든 관련 정치주가 소멸되었다. 원정 도박, 성 접대 논란으로 시끄러운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실적 악화와 주가 급락을 겪었다. 절대 사람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테마주에도 가치투자는 필수다

테마주 가치투자란

테마와 가치투자의 만남이다. 테마주 가치투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마의 장점인 반복성, 고점 매도 디테이와 무관심 저점 매수 구간 찾기가 핵심 전략이다. 과거 거래량, 차트 분석 등을 통해 반복성 경험치를 뽑아낸다. 둘째, 가치투자의 장점인 위험 회피다. 망할 기업 피하기, 주가 버블 피하기, 물량 폭 탄 피하기를 더한다. 셋째, 가치투자의 또 다른 장점인 매력적인 저평가 기업 찾기가다. 시가총액, 미래 PER, 시가배당률^{배당금÷현재 주가}로 매력적인 기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 테마주 가치투자의 정의

테마 장점	가치투자 장점	
	위험 회피	저평가 호재
테마 반복성 발견 • 고점 매도 디데이 • 무관심 저점 구간	망할 기업 피하기 주가 버블 피하기 물량 폭탄 피하기	시가총액 저평가 미래 PER 저평가 시가배당을 저평가

+

테마주 가치투자의 장점

테마와 가치투자의 장점을 섞어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테마주의 장점은 살리고 기업가치를 찾으니 균형이 맞다. 약세장에서는 기업가치보다 테마 이슈가 더 드러나서 좋고, 강세장에서는 기업가치에 따라 점진적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장점만 결합하니 서로 이득인 셈이다.

테마는 가치투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테마가 매력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가장 큰 장점은 첫째,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다는 것이다. 관심도 증가는 거래량을 부르고 거래량은 주가 급등을 만든다. 반면, 실적 개선과 자산 증가에도 관심 대상에서 멀어진다면 거래량이 부족한 소외주가 된다.

둘째, 테마는 이벤트 디데이가 있다. 디데이 부근이 주가 고점이기 때문에 매

도가 쉽다. 반면, 가치투자주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므로 매도 이후에도 느리지만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셋째, 테마주에는 저점 매수 기회가 있어 좋다. 테마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급등한 만큼 내려간다. 만약 반복성이 높다면 사람들이 무관심한 때가 저점 매수 기회다. 반면, 가치투자주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기대 수준까지 저점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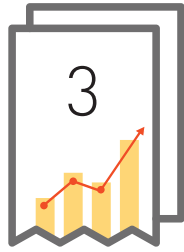
가치투자자는 테마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가치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본질이다. 망할 기업, 주가 버블, 물량 폭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합리적인 이유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서 투자가 불안하지 않다. 가치투자자는 투자 원칙을 세워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오랜 기다림을 견딜 수 있으며 손실이 났을 때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 신호등 종목 분석표 ◆

* 초록(양호), 노랑(주의), 주황(경고), 빨강(탈락)

분석 도구	원포인트 투자 진단		신호등
1단계 재무 분석 (기본적 분석)	당기순이익		
	시가총액		
	미래 PER		
	재무비율		
2단계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차트〉		
	학습 효과		
3단계 호재와 악재 점검	배당(시가배당률)		
	유상증자 & 주식 관련 사채		
	최대주주 리스크		
	기타		
종합 의견	매수(보류) 이유		
	매매 시점 & 가격		



신호등 종목 분석표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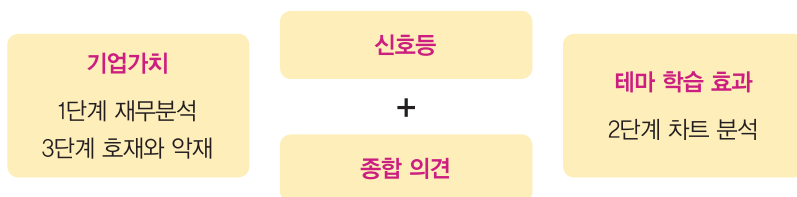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신호등 종목 분석표

신호등 종목 분석표는 테마주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탄복이다.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적을 공격할 도구가 된다. 위험성은 최대한 낮추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을 찾아 준다. 과한 당기순손실, 악화된 재무비율(부채비율, 당좌비율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피하면 이미 절반은 성공이다. 기업이 망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매력도가 높은 기업을 찾는다. 미래 PER, 시가배당률, 시가총액 등의 가치투자 기준과 차트를 통한 과거 학습 효과 검증이 주된 분석 방법이다. 각종 단계를 거치며 신호등에 주황(경고), 빨강(탈락) 불이 들어오면 제외시켜 매력적인 종목만 남기는 것이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 번에

신호등 종목 분석표는 30분 만에 완성할 수 있다. 각 지표에 대해 한 줄 코멘트 형식이라 적을 양도 별로 없다. 가치투자의 특성인 기업가치 분석과 테마주 특성인 차트 분석의 균형을 맞추었다.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매기는 일은 기본적 분석이고 차트 히스토리 점검은 기술적 분석이다. 테마주 가치투자는 이 두 가지 분석을 모두 활용한다. 기업가치가 좋으면서 차트 반복성이 높은 테마를 찾아보자. 호재와 악재 이슈까지 살펴보면 실속은 모두 챙긴 셈이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적은 뒤 4색 신호등으로 최종 진단을 해 보자.

신호등 종목 분석표 핵심 4요소



신호등 종목 분석표의 특징

4개 지표만으로 기업가치를 알 수 있다

기업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재무지표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가성비 높게 4개

부문(당기순이익, 시가총액, 미래 PER, 재무비율)으로 압축했다. 잃지 않는 가치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분석 기준만을 선별했다. 각종 재무 수치들을 일일이 찾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주의해야 할 특징들만 한두 줄로 압축하는 방식이다.

테마에 맞게 차트 분석을 더한다

차트 분석에서는 차트의 특징과 학습 효과를 살펴본다. 기억해야 할 특정 시점의 차트를 직접 그리는 다음 테마 이유, 발생 일자, 주가 등을 적는다. 직접 그려 넣기 때문에 뇌는 그만큼 더 잘 기억한다. 학습 효과란에는 반복된 경험의 특징만 요약해 적는다.

호재와 악재 이슈를 3가지로 압축한다

호재와 악재 이슈도 막상 점검하려면 너무 많아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다. 신회동 분석표에서는 간단하게 배당, 유상증자(주식 관련 사채), 최대주주의 3가지로 압축한다. 그 밖의 고려 사항이 있다면 기타란에 간단히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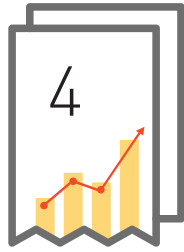
최근 3~5년간 기록을 기초로 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증권면 기업정보는 3~5년치의 재무 정보를 편리하게 보여 준다. 원칙적으로는 3년이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5년 동안의 기록을 점검하자. 그 이상의 기간은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를 활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별, 자료별로 각각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신호등이 주는 사인대로 투자한다

초록(양호)과 노랑(주의)은 긍정, 주황(경고)과 빨강(탈락)은 부정적 의미다. 빨강이면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적 투자자라면 주황(경고)을 없애고, 3색(초록, 노랑, 빨강)으로 운영해도 된다. 주황이 없으니 초록과 노랑이 아니면 무조건 탈락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적합한 투자 판단은 본인의 성향과 종목 특성에 따라 가감하기 바란다.



계절주 투자 전략

계절 말미에 사고 계절 정점에 팔아라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는 말에 충실한 투자법이다. 계절 정점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가 급등 구간으로 매도 기회다. 계절 말미는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저점 구간으로 매수 기회다. 계절 정점에 뒷북 고점 투자를 하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계절 말미에 손절매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계절은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계절을 기다리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절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학습된 기대감으로 주가는 우상향하기 때문이다.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위닉스의 경우 ①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이 계절 정점이고 ② 미세먼지가 사라진 여름 등이 계절 말미 주가 저점이다.



① 중소형주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12월 한 달 동안은 주가 상승이 어렵다. 중소형주는 개인 투자자 참여율이 높는데 슈퍼개미 매수세가 없으니 거래량은 줄고 주가는 낮은 쪽으로 움직인다. ② 12월이 지나고 우상향했다. 급등에 단기과열 완화 장치 발동 예고 경고를 내렸으니 잠시 쉬어 가는 횡보다. ③ 3월 황사가 불어오니 계절 정점이다. 탁한 공기에 정부 정책이 더해져 단기간 급등했다.

분기별 매매 vs. 연간 매매

분기별 매매는 제철인 계절주를 계절 정점에 팔고 다음 분기 정점인 계절주를 한 분기 전에 선점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겨울철 계절 정점인 AI주를 팔고 다음 계절주인 미세먼지주를 선점하는 식이다. 연간 매매는 계절 말미 연중 저점 구간을 정해서 매수한 후 이듬해 계절 정점까지 보유한다. 각 계절마다 매도 기회를 짧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느긋하게 일 년에 한 번 계절을 이용할 것인가의 판단은 선택의 문제다. 오래 기다릴수록 수익률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돌발 변수가 많다. 반면, 짧은 기다림은 수익률이 낮을 수 있으나(계절 정점이 가까워졌기에 일 년 기다림보다 저점이 높을 수 있다) 대신 짧게 자주 수익이 나며 변화에 따른 대응이 빠르다. 두 경우 모두 목표 수익률은 40%다. 분기별 매매로 매 계절마다 10%씩 4번 수익을 얻는다. 연간 매매는 한 번에 40% 수익을 목표로 한다.

계절주 캘린더를 만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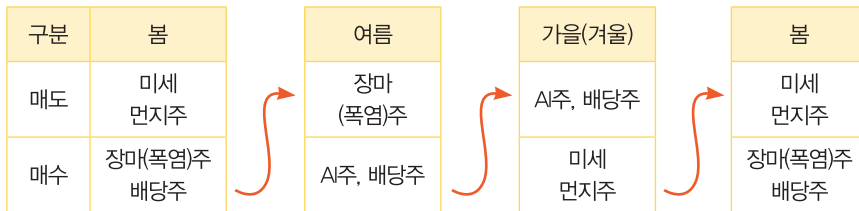
분기마다 계절주에 투자할 수 있으니 계절주 캘린더가 필요하다. 달력이 있는 다이어리를 하나 마련해 보자. 캘린더 내용은 심플하다. 4계절에 맞춰 매매 종목만 나열하면 된다. 분기별로 매매를 하겠다면 다음 예시와 같이 일정을 짜고 달력에 적으면 된다.

연간 매매라면 최적 매수 저점과 매도 고점을 기록하자. 미세먼지주 크린앤사

이언스는 7~8월 또는 12월에 저점 매수하고 3월에 매도하며, AI(조류독감) 관련 주인 중앙백신은 4~5월 매수 후 11월 매도하는 일정으로 캘린더에 기재한다.

또한 계획과 매매 결과가 일치하는지 검증도 필요하다. 계획 아이디어에 실제 매매일지를 더해 작성해 두자. 계획은 파란색, 실제 매매는 빨간색으로 구분하면 보기도 좋다. 몇 년간 계획과 매매일지가 쌓이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시험 족보가 된다. 그 족보 하나면 산업과 새로운 종목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분기별 투자 전략 캘린더 예시



종목 분산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앞서 대장주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계절주는 예외다. 대장주와 후발 주자 모두 학습 효과가 여러 차례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대장주가 여럿인 테마인 셈이다. 테마주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는 데 있다. 한두 종목이 잘못되어도 큰 타격이 없도록 종목을 분산하는 것이다. 한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

은 나중에 감내해야 할 손실이 클 수 있다. 펀드나 ETF의 특징처럼 개별 기업 악재 또는 혼자 오르지 못하는 리스크를 피하자.

종목 분산 방법에는 한 계절보다 두세 계절로 나누는 것이 있다. 또한 같은 계절도 나눠서 사는데, 동물 백신주라면 중앙백신, 제일바이오, 이글벳 등으로 분산한다.

계절주, 절대 손절매하지 마라

계절 정점에 고가로 매수했다고 아쉬워하지 마라. 1년 후면 다시 매도 기회가 오니 계절 말미에 추가 매수해 매수 단가를 낮추자. 계절주를 손절매하는 것은 바른 투자법이 아니다. 기업이 부실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손실 구간은 매력적인 투자 기회이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적자에 운영 자금 부족으로 유상증자와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남발하는 회사는 계절주 가치투자 대상이 아니다. 계절주 투자는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실 회사는 과감히 투자 종목에서 제외하자.

공포의 강도를 체크하라

자연재해, 전염병은 공포 마케팅이다. 두려움에 비례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

에 그 강도가 세지 않다면 주가 상승은 어렵다. 동물보다 인간 전염병에 의한 주가 상승에 반응이 더 과한 이유다. 공포감 지속성도 주시해야 할 사항이다. 전염병은 인간(동물) 치사 여부, 전파 속도 등에 따라 공포감이 지속되는 기간도 다르다. 뉴스가 계속되면 테마는 지속된다. 그렇다면 반은 매도하고 반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유해 볼 수 있다. 반대로 공포감은 감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무뎈진다. 돼지열병, 구제역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면 방역주 테마도 힘을 잃는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공포감이 무뎈지기 전에 안전하게 매도할 필요가 있다.



상황별 공기청정기주·마스크주 주가 추이 비교

① 대통령 정책에 따른 공기청정기주 vs. 마스크주

2019년 3월 5일, 대통령이 학교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의무화를 지시하자 공기청정기 관련주가 급등했다. 정책이 곧바로 실적 개선과 연결되니 강한 상승세였다. 다만, 마스크주는 공기청정기 확대 수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같은 미세먼지 테마이긴 하지만 공기청정기주 급등을 지켜봐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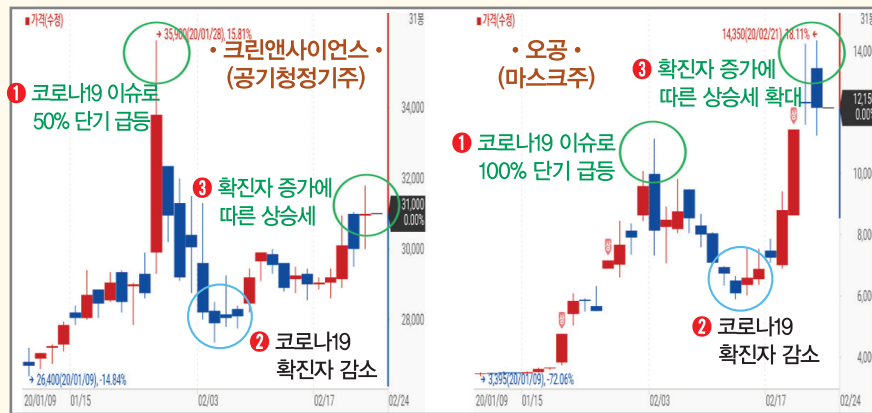
하지만 테마는 돌고 돈다. 공기청정기주가 오를 만큼 오르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났다. 풍선 효과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듯이,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가 이전되는 현상으로 세력이 마스크주로 옮겨가니 모나리자는 짧은 급등을 경험했다.



- ① 대통령 공기정화기 설치 언급에 (좌) 공기청정기주 위닉스는 급등한 반면, (우) 마스크주 모나리자는 횡보세였다.
② (좌) 위닉스 급등으로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뜨자 세력들이 (우) 모나리자로 이동하니 풍선 효과 급등세였다.

② 코로나19 전염병에 따른 공기청정기주 vs. 마스크주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 영향은 마스크주가 더 강하게 받았다. 폐렴 바이러스가 사람 간 침에 의해 전이된다는 점에서 마스크 품질 사태가 벌어졌다. 덕분에 공기청정기주보다 마스크주가 과한 급등을 맞았다.



- ① 코로나19 발생으로 (좌) 공기청정기주 크림앤사이언스가 단기 50% 상승, (우) 마스크주 오공은 100% 상승세였다.
- ②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자 더 나을 뉴스가 없으니 테마 바람은 꺼진 듯했다. ③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마스크주 폭등세가 거세다. 앞선 급등분보다 더한 급등 장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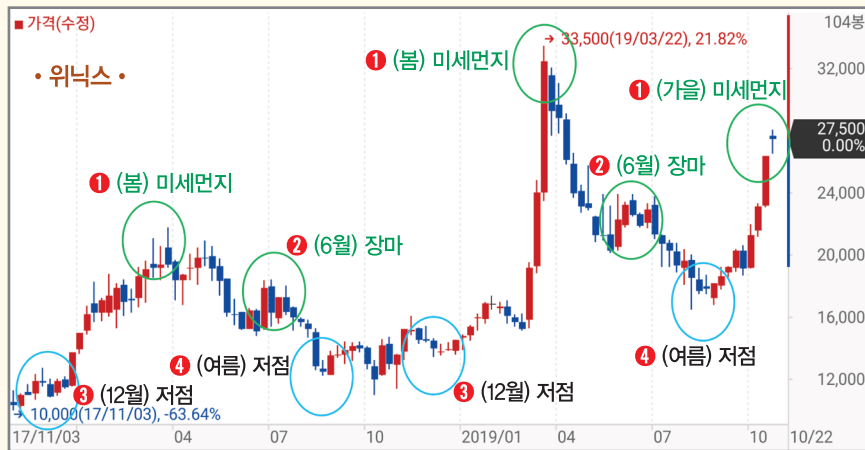


종목 분석: 공기청정기주 1

위닉스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주력인 회사로 미세먼지와 장마의 더블 역세권이다. 마른장마로 인해 제습기 인기가 시들해지자 주력 제품을 공기청정기로 전환한 전략이 주효했다. 지금은 미세먼지 쪽이 훨씬 강하다. 2019년 미세먼지 악화로 공기청정기 매출이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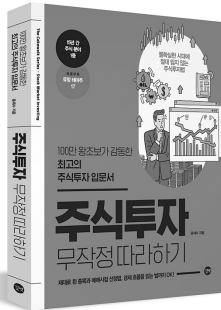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두 차례 주당 200원씩 총 400원 배당(시가배당률 2.9%)을 했다. 2019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62%였다. 2020년 3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5년 만기, 무이자)했다. 1986년에 설립되어 2000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①~② 봄 미세먼지와 장마 등 2번의 급등 매도 기회가 있다. ③~④ 여름과 12월은 주가 저점 매수 기회다.

상반기 두 번의 이벤트(미세먼지, 장마)로 인해 하반기보다 주가가 높다. 다만, 2019년부터는 난방철 미세먼지 영향으로 가을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실적 개선으로 인해 매년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 테마도 강해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장마보다 급등폭이 훨씬 크다. 하지만 위닉스도 12월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피해갈 수 없다. 여름 저점과 함께 12월 지루한 횡보가 투자 기회다.

100만 독자가 감동한 주식 전문가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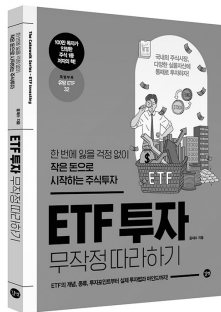


윤재수 지음 | 420쪽 | 18,000원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100만 왕초보가 감동한 최고의 주식투자 입문서

- ▶ 15년 간 주식 분야 1등 책, 2020년 최신개정판 출간!
- ▶ HTS 활용은 기본! 봉차트, 추세선, 이동평균선까지 완벽 학습
- ▶ 독자 스스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실용코너가 한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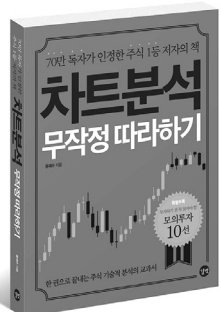


윤재수 지음 | 276쪽 | 16,000원

ETF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한 번에 잃을 걱정 없이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주식투자

- ▶ 주식은 무섭고, 고수익은 탐나는 왕초보를 위한 안전투자!
- ▶ 종목 선정에 지친 개미투자자, 펀드와 주식의 장점만 모은 ETF가 정답이다!
- ▶ ETF의 개념부터 매매 방법, 종목을 고르는 안목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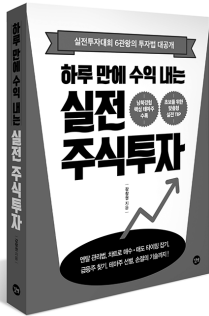
윤재수 지음 | 400쪽 | 25,000원

차트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한 권으로 끝내는 주식 기술적 분석의 교과서

- ▶ 주식투자 전문가가 활용하는 8개의 차트분석 기법 대공개!
- ▶ 난해한 차트분석, 예제만 따라해도 매매시점이 한눈에 보인다
- ▶ 생생한 실전사례를 통해 기술적 분석의 핵심만 쏙쏙!

길벗 주식 도서 베스트셀러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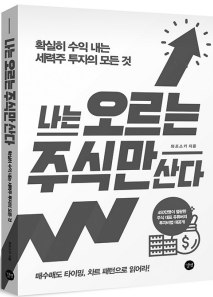


강창권 지음 | 360쪽 | 20,000원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주식투자

실전투자대회 6관왕의 투자법 대공개

- ▶ 차트 보기, 급등주 찾기, 테마주 올라타기, 손절하기까지!
- ▶ 따라하면 누구나 무조건 돈 버는 고수의 비법
- ▶ 실전에서는 화려한 차트분석보다 거래량&호가가 이긴다!



와조스키 지음 | 224쪽 | 16,000원

나는 오르는 주식만 산다

확실히 수익 내는 세력주 투자의 모든 것

- ▶ 450만 명이 열광한 주식 대표 유튜버, 와조스키의 강의를 책으로!
- ▶ 매수매도 타이밍, 차트 패턴으로 읽는다!
- ▶ 비자발적 장기투자에서 벗어나 세력주에 올라타는 법 대공개!



최금식 지 | 328쪽 | 16,500원

나는 하루 1시간 주식투자자로 연봉 번다

반드시 수익 내는 3단계 주식투자 원칙

- ▶ 1시간 투자하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는다!
- ▶ 8년째 주식 맞벌이를 해온 부자의 투자 노하우 수록
- ▶ 종목선정 노하우부터 최적의 매수매도 타이밍, 예약주문 활용법까지!